

경제

■ 본보 기자, 대형마트 장보기 물가 분석

가격 안 오른줄 알았더니 일부제품용량 확 줄었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열풍이 신선식품 외에 가공식품까지 확산되면서 서민들은 장 보기가 겁이 날 정도다. 특히 일부 가공식품은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낮췄지만 g당 가격을 따져보면 역시 가격이 올라 물가고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보 기자가 9일 오후 광주의 한 대형마트를 찾자 직접 장을 봤다. 우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파(1만·3080원), 대파(990원), 당근(990원), 두부(2580원), 새송이버섯(2봉지·3380원) 등 행사 중인 기획상품 위주로 신선식품을 선택했다.

또 자반고등어(2마리·3960원), 닭볶음탕 생닭(1팩·4380원), 감자(1kg·5980원), 간마늘(400g·4980원), 애호박(1개·1480원), 생굴(1봉지·3580원), 달걀(15개·3280원) 등을 카트에 담았다. 설탕(3kg·4220원), 고추장(500g·3800원), 간장(1.8ℓ·9600원) 등 요리할 때 필요한 식재료도 몇 가지 챙기고, 후식용으로 유제품(4580원)과 딸기 1팩(1만7500원)도 담았다.

기자가 장을 보는 동안 몇몇 주부들이 시금치·무·애호박 등을 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제자리에 두

고 가버리는 등 주부들의 카트는 여느때와 달리 비어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기자가 지불한 비용은 총 7만8360원. 꼭 필요한 것만 샀는데도 예상 비용을 2만원 이상 초과했다.

기획상품인 새송이 버섯은 2주 전 2880원이었던 것이 500원 올랐고, 생굴도 2380원에서 2주 사이 1200원이나 오르는 등 신선식품이 많이 오른데다 대기업에서 내놓은 가공식품들도 큰 폭으로 올랐다.

양파·대파 조금 샀는데

벌써 비용 초과 한숨만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용량을 3분의1이나 절반으로 줄여 판매하면서 가격이 인하한 것처럼 보였지만 100g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인하된 것이 아닌 5~50%까지 가격이 올랐다. A 케첩은 용량을 줄여 295g 1290원에 판매중이었다. 100g당 가격을 따져보면 296원에서 437원으로 올라 47.6%나 급등했다.

B 마요네즈도 500g 2820원에 팔던 것을 용량을 250g으로 줄여 1380원에 팔면서 100g당 12원이

올랐다. C 참기름(320ml)과 D 식용유(900ml)는 두달 사이 각각 990원, 170원이 올라 6600원과 2770원에 판매중이었다.

1330원 하던 사이다(1.5ℓ)는 1700원, 플라(1.8ℓ) 1760원에서 1940원으로, E커피(180개) 1만 9800원에서 2만1900원으로 가격이 훌쩍 올랐다.

물가상승 여파는 식품에 머무르지 않고 치약이나 주방세제 같은 공산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치약(390g)은 2950원에서 3350원으로 올랐고 F 주방세제(965ml)도 1000원 오른 598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지난달 설탕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가공식품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밀가루 값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밥상 물가'는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이날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이은숙(38·서구 화동동)씨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만 사고 기획상품위주로 장을 보는데도 항상 예상비용을 초과한다"며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차 관리자 '한마음 전진' 결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용) 임직원 270여명은 지난 8일 무등산 장봉재에서 '관리자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고객중심의 생산체제 정착 ▲일등 품질 실현 ▲글로벌 수익기반 확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등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광주 올 아파트 8320가구 공급

지난해보다 11.2% 증가... 중소형 부족난 여전

■ 2011년 광주 아파트 공급계획

관리주체	공급유형	위치	가구수	전용면적	입주예정일
LH	30년 국민임대	수원지구 7블럭	1,215	60㎡ 이하	2011.05
		첨단2지구 1블럭	1,232	"	2011.02
		첨단2지구 2블럭	676	"	"
		백운2단지	240	"	2011.10
		백운3단지	754	"	2011.07
5년 공공임대	백운1단지	838	85㎡ 이하	2011.10	
	화2 주거환경	794	"	"	
민간	임대	광산구 대성베르힐	280	112.0~114.0㎡	2011.09
	분양	남구 진월동 한국	127	84.1~84.8㎡	2011.02
		남구 봉선동 남양	315	114.7~231.3㎡	2011.1~2월
		광산구 수원 대방2차	442	84.8~84.9㎡	2011.05
		광산구 수원 대방3차	391	131.0~156.5㎡	"
		서구 쌍촌동 상무푸르지오	471	106.6~156.2㎡	2011.06
	광산구 수원 대방4차	545	117.8~129.0㎡	2011.11	

올해 광주지역에서는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등 모두 8320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공급물량이 11.2% 늘었지만, 중소형 아파트 공급 부족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광주지역 생활정보신문 사람방신문이 '2011년 입주예정 아파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광주는 민간분양 2291가구가 임대 6029가구 등 모두 8320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민간아파트는 6개 단지 2291가구가 민간 임대 1개 단지 280가구가 공급된다. 5년 공공임대는 2개 단지 1632가구가, 30년 국민임대는 5개 단지 4117가구가 입주한다.

우선 남양건설이 공급한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전용면적 114.7~231.3㎡) 315가구가 2월부터 새 주인을 맞는다. 한국건설이 남구 진월동에 분양한 한국아델리움 2차(84.1~84.8㎡) 127가구가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광산구 수원 대방2차(84.8~84.9㎡) 442가구가 수원 대방3차(131.0~156.5㎡) 391가구가 5월부터 입주

이뤄질 전망이다. 6월에는 대우건설이 서구 쌍촌동에 분양한 상무푸르지오(106.6~156.2㎡) 471가구가 입주한다. 11월에는 수원 대방4차(117.8~129.0㎡) 545가구가 주인맞이에 나선다.

또 대성건설은 9월 광산구 소촌동에 대성베르힐(112.0~114.0㎡) 280가구를 민간 임대아파트로 선보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본부는 5년 공공임대, 30년 국민임대를 내놓는다.

5년 임대는 10월 백운1단지와 화2동에 전용면적 85㎡ 이하 838가구와 794가구가 나란히 입주한다. 30년 국민임대는 광산구 첨단·수원지구와 남구 백운동에 공급된다. 첨단2지구 1·2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1908가구가 다음달 입주를 시작하고, 수원 7블록에 60㎡ 이하 1215가구는 5월에 공급된다. 또 백운3단지 60㎡ 이하 754가구와 백운2단지 240가구는 각각 7월과 10월 입주한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7481가구보다 11.2% 늘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해 공기업 채용시장 '맑음'

70% "대졸 모집 계획"

공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어 지난해보다 공기업 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공기업 53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정규직 대졸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공기업은 40곳(75.5%)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채용 예상 인원은 모두 2992명으로 지난해(1902명)보다 57.3% 많았다.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은 11곳(20.8%)이었고, 아직까지 채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곳은 2개사(3.8%)였다.

올해 채용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은 570명을 채용할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231명), 한국전력공사(215명), 한국전력기술(215명) 등 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채용 규모가 컸다. 철도공사 201명, 한국가스공사 150명, 한국남동발전 145명, 한국지역난방공사 137명, LH(한국토지주택공사) 132명, 한국중부발전과 한전 KDN이 각각 13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대졸 초임 연봉을 밝힌 39곳의 올해 예상 초임은 2597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인수

채권단, 금주 MOU 체결... 내달 중순 본계약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은 7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7일 "지난 4일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

지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인수를 주주협의회에 상정해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찬성(98.53%)으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 주 중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4~5주간의 실사를 거쳐 2월 중순 본계약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롯데마트 이번엔 '통큰한우' 판매

한우농 달래기 오늘부터 10일간... 돼지고기도 함께

롯데마트(사장 노병용)는 10일부터 19일까지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할인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 롯데마트 90개 점포에서 진행되는 할인행사 물량은 한우 50t, 돼지고기 200t으로, 평상시 기획행사보다 각각 2배, 4배나 많은 규모다. 이번 행사는 구제역 확산으로 축산 농가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진행된 미국산 'LA 갈비' 판매로 성년 축산농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후 최근 한 달간 4차례나 한우 기획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른 대형마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우 소비 진작에 나섰다"면서 "지난주 같 비형사로 이러한 노력은 묻히고 오해가 확산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정돼 있던 한우 행사 시작일을 앞당기고 기간을 늘린 것은 이런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의미

도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에서 등심 및 채끝(1등급) 100g을 정가가 대비 24%가량 할인한 5700원에 판매하고, 국거리·불고기(1등급)도 25%가량 저렴한 2900원에 판다.

국내산 돼지고기도 34%에서 최고 58%까지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평소보다 3일이나 앞당겨 월요일에 시작하고 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늘렸다"며 "축산농가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42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17 27 28 29 40	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896,153,875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1,448,446	47
3 5개 숫자 일치	1,360,389	1,432
4 4개 숫자 일치	50,000	69,948
5 3개 숫자 일치	5,000	1,150,428

- ▲ 코스피지수 2,086.20 (+8.59)
- ▲ 코스닥지수 530.84 (+3.20)
- ▲ 금리 (국고채 3년) 3.59% (+0.01)
- ▲ 원·달러 환율 1,122.30원 (+2.70)

※수치는 7일 기준 1주전과 비교

특허청 서비스 등록 제 41-0187289호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 홀 : 연인, 친구, 가족 (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광 입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1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약(500석 완비)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출장뷔페 전문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